

# 카페 051

## 서비스경험 디자인 시나리오 개발



# 페르소나



이름: 김민정

나이: 25세

성별: 여자

가족관계: 부, 모, 언니1

라이프 스타일: 자취 2년차  
대학생이라 하루에 카페인 섭취를 필수로 하는데  
시험기간일 때는 커피 3잔까지도 마시는 편이다.  
커피뿐만 아니라 음료를 좋아해서 자주 가는 카페의  
신메뉴는 전부 먹어본다.

# 페르소나 시나리오

1

김민정씨의 본가는 대구인데 대학교를 부산으로 다니게 되어 혼자 올라와 지낸지 2년째이다.  
민정씨 성격이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다 타지에서 혼자 올라와 친한친구가 많이 없는 편이다.  
친한 친구들이 거의 다 멀리 있거나 부산에서 사귀 친구들 마저 시간대가 안 맞아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평소에 시험이 끝나도 여가시간을 보낼 때 혼자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는 편이다.  
커피뿐만 아니라 음료 자체를 좋아해서 카페를 자주 가는데 집 주변에 카페051이 있어서 애용한다.  
카페 051이 가격이 저렴한데다 양도 많고 맛도 있어서 단골카페이다.  
학교에 갈 때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매하고 집으로 귀가할 때는 다양하게 시켜 먹는다.  
계절이 바뀌면 시즌메뉴가 계속 나오는데 **신메뉴를 구경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자주 접속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맨 위 배너에서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메뉴창에는 신메뉴와 전체메뉴로 나뉘어져 있어 신메뉴 코너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근데 **신메뉴 창을 클릭해서 들어 갔을 때 지금 진행 중인 시즌메뉴가 먼저 보이는게 아니라 이전에 진행했던 모든 시즌메뉴들이 나열되어있어서 한눈에 보기 힘들었다.**  
현재 진행중인 메뉴들을 보려면 여러번 클릭해서 들어가야하는게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써야해서 요즘은 홈페이지를 많이 안들어가게 되는 것 같다.



## 페르소나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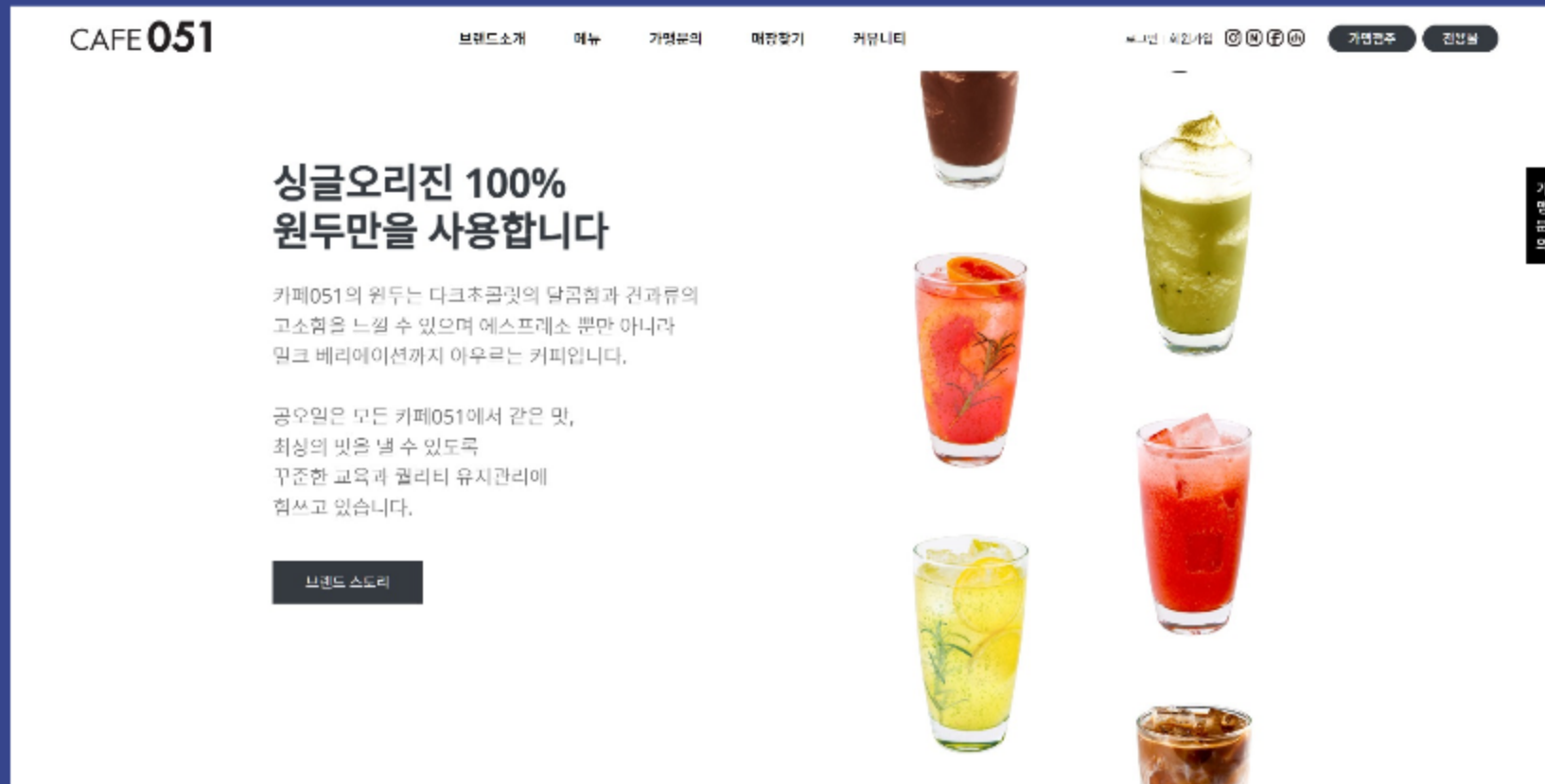
민정씨가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이유는 메뉴를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음료와 상세설명을 크게 보면서 미리 메뉴를 결정하고 카페에 가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메인 홈페이지에는 신메뉴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신메뉴창을 찾아 여러번 클릭해서 봐야하기 때문에 **메인 홈페이지에도 신메뉴의 사진과 설명이 바로 보였으면 좋겠고,**

신메뉴창에 들어가서도 여러번 클릭해서 정보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금 새로 나온 시즌메뉴가 제일 먼저 보이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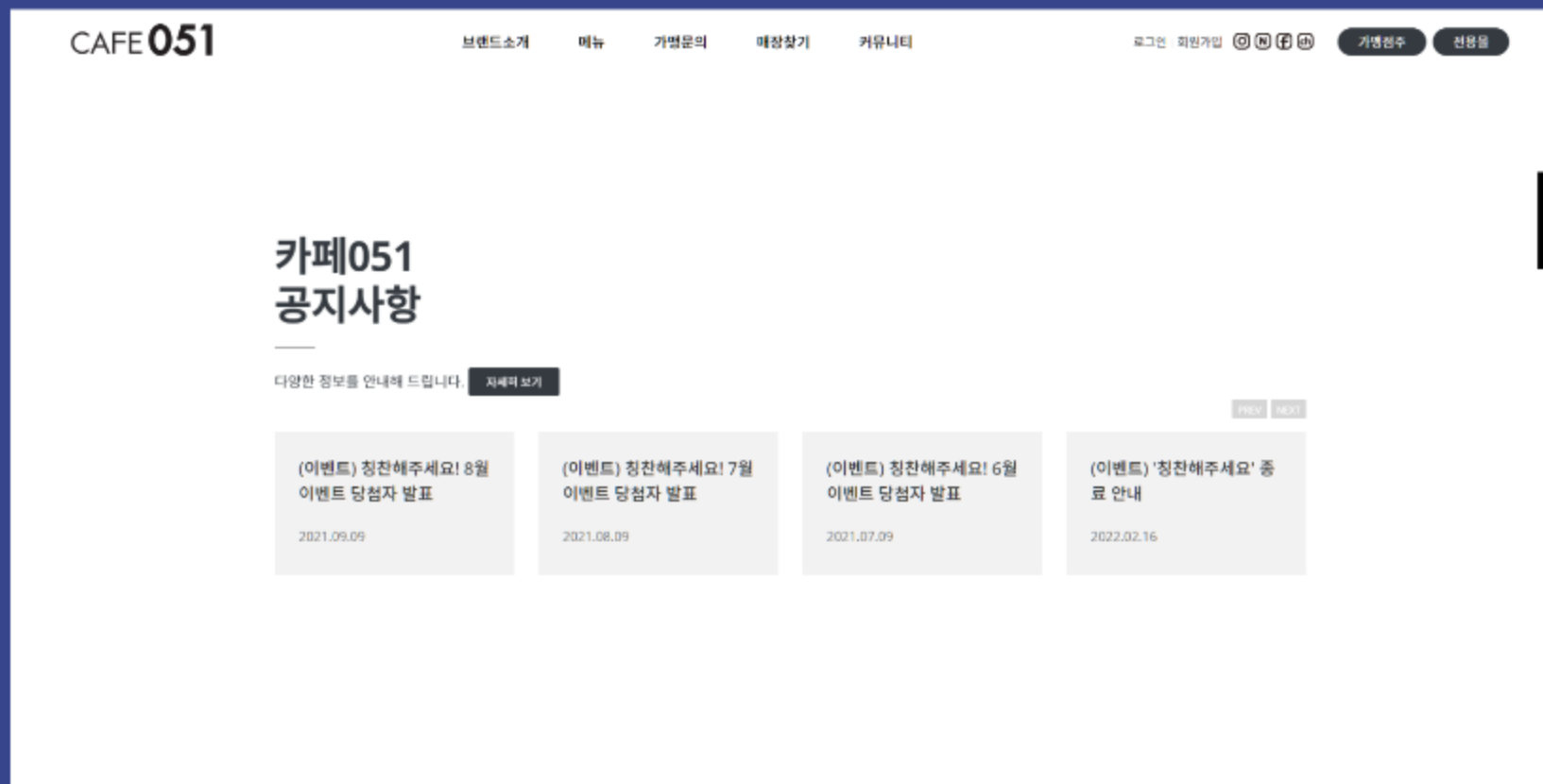


## 문제점

메인 홈페이지에는 기존 메뉴의 이미지만 있고  
신메뉴의 이미지와 설명이 없음

## 해결방안

메인 홈페이지에 신메뉴이미지와 설명을 왼쪽  
사진(기본메뉴)보다 위에 배치해서 보기 쉽게 함



## 문제점

홈페이지 디자인이 미니멀하긴 하나 시각적 요소가  
작고 스크롤 및 트리거 기반 애니메이션이 없어  
단조롭고 심심함

## 해결방안

브랜드가 추구하는 감성에 맞춰서 적당한 정도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서 시각적 재미요소를 만듦